

4 종합

기숙사 방역 소홀? 벌레 출현 민원 증가 사감실 “방역은 철저”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국제】학생들 사이에서 제2기숙사 방역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제2기숙사는 기존에 실시하는 방역에 문제는 없었고 추가 방역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올해 5월부터 제2기숙사 A동 몇몇 층의 단체 카톡방에서 적지 않은 바퀴벌레 목격담이 오갔다. 작년부턴 제2기숙사에 거주해온 천윤정(식물환경신소재공학 2022) 씨는 “작년에는 여름에 돈벌레가 한 번 나온 것 말고는 날벌레조차 목격한 적이 없었다”며 “올해에는 여름이 시작되면 서부터 벌레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생들 사이에서도 작년과 달리 바퀴벌레 문제도 자주 언급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숙사에 3년째 거주 중인 최은서(응용수학 2021) 씨도 “이전까지는 날벌레조차도 본 적이 없었는데 확실히 이번 학기부터 벌레 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제2기숙사 측은 방역에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방역은 계약을 맺은 전문 방역 업체가 실시한다. 제2기숙사 사감실은 “올해 방역에 있어서 이전보다 특별히 부족했던 점은 없다”며 “정기 소독 진행 절차는 층별 복도, 세미나실, 휴게실과 같은 공용 공간과 각 호실을 다 돌아다니며 개별 공간을 소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의 민원이 증가하자 사감실은 기존 1학기 방역 일정(5월 10일, 6월 27일)에 더해 5월 27일과 6월 12일에 추가 방역을 실시했다. 더불어 방역 업체를 통해 조사를 한 결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숲바퀴’가 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감실은 “숲바퀴는 크기가 큰 대신 번식률이 낮아 많은 개체가 번식했을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리적 특성상 기숙사가 산 바로 옆에 있다 보니 산에 서식하는 벌레들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그 의견을 전했다.

사감실은 이어 방역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방역 전문 업체로부터 약품을 요청받아 현재 스프레이형, 가루형 등 다양한 종류의 약품을 구비했다. 벌레 민원 신고 접수 시 추가 소독을 한다. 사감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서 약품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빌려갈 수 있거나 직접 방문해서 약품을 분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기숙사 측의 더욱 철저한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학기부터 제2기숙사에 거주 중인 이윤진(식품생명공학 2024) 씨는 “호실 소독을 진행할 때 화장실 배수구 소독 작업만 진행하기보다 창틀이나 옷장, 책상 뒤 등에도 소독 작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방충망같은 곳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주셨으면 한다”며 의견을 전했다.

도서관 사석화, 정상화 위해 노력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서울】의학계열전문도서관(의학도서관) 사석화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중앙도서관 측은 사석화를 막기 위해 ‘사석화 금지’ 경고문구를 출입구를 비롯한 곳곳에 부착했다. 이번 주부터 사석화 방지를 위한 캠페인 역시 진행한다.

지난 27일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도서관이 언제부터 개인 독서실이 됐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이용자가 적고 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사석화 문제가 방치됐다”며 “지난겨울 방학부터 점점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댓글에서는 “의학도서관은 늘 그랬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의 반응 역시 비슷하다. 의학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노성환(약학 2019)씨는 “한 사람이 여러 자리를 한 번에 이용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사석화 문제에 대한 민원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김지영 차장은 “도서관자치위원회(도자위) 인스타 등의 경로로 사석화나 소음 등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학생들이 직접 얘기하기는 어려워 자치위원회를 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원인으로 김 차장은 “의학도서관의 경우 좌석 회전을 높이 않아 사석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관리자의 부재도 원인으로 지목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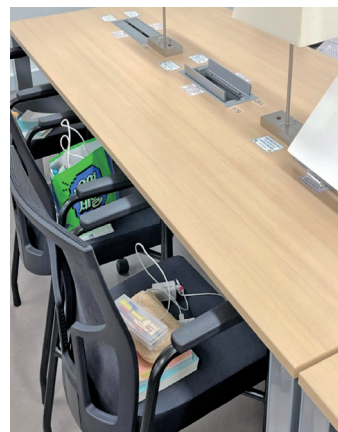


의학도서관의 사석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재게돼 왔다. (사진=에브리타임 작성자 제공)

다. 노 씨는 “의학도서관은 자주 드나드는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며 “가끔씩이라도 도서관이 관리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사석화 문제에 대해 “좌석마다 좌석 발권 후 이용하도록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고 1일 2회 열람실 순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일부 사석화 이용자의 경우 주의를 주어 좌석을 정리한 등의 조치를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도자위에서 정기적으로 열람실을 순찰 및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품을 두고 장시간 이석하는 경우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도서관은 이번 주부터 사석화 금지와 관련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서관자치위원회에



서는 사석화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소음주의, 키스킨 사용과 같은 도서관 내 에티켓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본인 이름으로만 좌석 발권하기’, ‘키보드는 꼭 허용된 열람실에서만 사용하기’, ‘소음 조심하기’, ‘흡연 금지’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김 차장은 “해당 캠페인에 많은 학생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 접수일정

- 1) 접수기간 : 2024.10.11.(금) 10:00~ 10.18.(금) 17:00
- 2) 접수처 : www.uwayapply.com
- 3) 면접고사 : 2024.11.23.(토)

- 4) 합격자 발표 : 2024.12.20. (금) 15:00 예정
 - 5) 합격자 등록 : 2025.01.02. (목) 09:00~ 01.06. (월) 16:00
- 모집전공 및 모집인원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참조